

Saint-Exupéry의 Le Petit Prince 中 les mots signifiants의 分析

黃 乙 文

L'analyse les mots signifiants dans "Le Petit Prince"
de Saint-Exupéry

Hwang, Earl-moon

〈 目 次 〉

Résumé
序 論
本 論

結 論
Bibliographie

Résumé

Saint-Exupéry était non seulement un grand écrivain et un grand savant mais aussi un grand philosophe. De ses oeuvres, Le petit prince qui avait publié en 1943, est la dernière oeuvre achevée par lui-même. Dans Le Petit Prince, en faisant une réprimande aux grandes personnes qui s'oublient l'essentiel de l'homme, en même temps, il en recherche tout au long de 27 chapitres.

La plus essentielle de son idée philosophique est impliquée d'un mot "apprivoiser" et deux phrases très simple: "On ne voit bien qu'avec le coeur.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

Il est nécessaire donc d'analyser et d'apprécier Le petit prince, de même que, cela vaut peut-être mieux pour les hommes de nos jours.

序 論

Saint-Exupéry(以下 그의 愛稱인 Saint-Ex로 表記함)는 명상과 폐쇄적인 경향으로 일관된 1920년대 西歐文學風土를 탈피하고 다양한 국제정세 속에서 人間條件의 탐구가 절실히 요구되던 1930년대 文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engagement 作家中 한사람이다.

pilot 였던 그는 하늘에서 巨視的인 眼目으로 세상과 人間을 觀照하고 文學의 영역을 넘어서 哲學的인 自身の 思考를 詩情 넘치는 文體로 人間の 本質과 行動의 倫理를 現代人들에게 그의 全作品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代表作으로는 "Terre des Hommes"가 손꼽히지만, 1943년에 出刊된 "Le petit prince"가 자신의 完成作으로는 마지막 작품일 뿐더러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한 報告文學 형식을 벗어나 幻想의 世界에서 Petit prince란 架空人物을 내세워 Signifiant한 文句로 허구에 찬 기성세대를 통렬히 叱咤하고 있는데 童話처럼 보이는 이 작품의 全 27章을 통하여 그의 哲學的 思想을 各章과 各句節마다

의미 심상하게 表現하고 있으므로 各章별로 그 句節들을 발췌하여 分析하고 음미해 봄으로서 Saint-Ex의 文學과 思想의 精髓를 밝혀내는 것이 本論文의 根本 목표이다.

本 論

第 1章에서 le serpent Boa 그림을 보고 les grandes personnes(어른 즉 現代人을 Saint-Ex가 이 작품에선 俗人으로 규정짓고 있다)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대해 Les grandes personnes ne comprennent jamais rien toutes seules, et c'est fatigant, pour les enfants de toujours et toujours leur donner des explications.¹⁾라고 善人=어린이, 어른=俗物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善하게 태어난 人間이 成長해 감에 따라 점점 惡習에 물들게 되어 純眞無垢한 善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句節이다.

Saint-Ex는 어린이들의 純眞난만한 思考方式과 行動이야 말로 지극히 바람직한 人間行動의 規範으로 보고 그러한 思考에서 모든 행동의 倫理가 追求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 자신도 “Je suis de mon enfance”라고 술회하고 있듯이 어른의 세계를 否定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전개하려는 이 작품의 세계가 現實이 아닌 幻想의 世界임을 暗示하고 있다.

2章에서 Petit prince가 사막에 不時着 한 “나”라는 이 作品의 設話者에게 Dessine-moi un mouton 이라고 要求했을 때 Comme je n'avais jamais dessiné un mouton je refis, pour l'un des deux seul dessins dont j'étais capable. Celui du boa fermé. Et je fus stupéfait d'entendre le petit bonhomme me répondre: Non! Non! Je ne veux pas d'un éléphant dans un boa. Un boa est très dangereux, et un éléphant c'est très encombrant.²⁾

Les grandes personnes가 단순한 모자로 밖에 보지 못한 Le serpent boa fermé 속의 꼬끼리를 petit prince가 단번에 간파하는 것을 몹시 놀라는 句節인데 事物을 觀照할 수 있는 能力이 어른 보다는 차라리 어린이에게 있다고 할지도 모르나 그 裏面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俗物人間이 아니고 神이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린이야 말로 神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神의 순수성에 가장 가까운 人間이므로 순수란 의미에서 어린이는 마땅히 指向되어야 할 人間本質의 根本要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이면 양을 그려달라고 한 것은 온순, 순결, 평화를 상징하는 양의 image 때문으로 보인다. 병든 양, 빨간 숫양, 늙은 양이 모두가 순수란 의미엔 부합되지 않으므로 거부되고 양이 들어있는 상자를 그려주자 Il pencha la tête vers le dessin: -Pas si petit que ça...Tiens! Il s'est endormi...³⁾

얼마나 純眞난만한 sympatie를 불러 일으키는 대목인지 人間本然의 상태를 절로 동경케 하고 外的인 요소보다 內的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구절로 볼 수 있으나 속이 보이지 않는 상자 즉 Petit prince가 거부하지 않는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작가 자신도 절대적인 善의 모습은 現

1)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13.

2)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15.

3)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14.

像시키기에 곤란했을 걸로 생각된다.

그 양과 상자 이야기는 3장에서 계속되어—Ce qui est bien, avec la caisse que tu m’as donné, c’est que, la nuit, ça lui servira de maison.

—Bien sûr. Et si tu es gentil, je te donnerai aussi une corde pour l’attacher pendant le jour Et un piquet. La proposition parut choquer le petit prince: L’attacher? Quelle drôle idée!⁴⁾

양을 부풀어 매어 둔다는 제안에 ‘choke’ 받은 petit prince의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이냐”는 대꾸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숙연케 하는 것이었다. 목에 끈을 달고 말뚝에 매어 놓는다는 것은 人間相互不信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단절을 의미한다.

매놓치 않으면 어디든지 가버린다는 경고는 결국 所有主가 바뀔을 의미하는 것, 탐욕적이고 물욕에 눈이 어두운 現代人에 대한 叱咤이고 제맘대로 휘둘 수 있는 양을 비꼴어 매둔다는 것은 自然에 헛되어 도전하는 우둔한 인간을 비꼰 것이다.

4장에서 1장과 마찬가지로 事物의 裏面을 못 보는 les grandes personnes의 盲目을 풍자하고 있다. 즉, J’ai de sérieuses raison de croire que la planète d’où venait le petit prince est l’astéroïde B612. C’est astéroïde n’a été aperçu qu’une fois au télescope, en 1909, par un astronome turc. Il avait fait alors une grande démonstration de sa découverte à un Congrès International d’Astronomie. Mais personne ne l’avait cru à cause de son costume. Les grandes personnes sont comme ça.⁵⁾

Saint-Ex는 citadelle에서 “L’essentiel du cierge n’est point la cire qui laisse des traces mais la lumière”라고 人間の 本質에 대해 양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양초의 본질이 흔적을 남기는 초뚝이 아니라 불빛이다”는 뜻은 몸과 마음을 연소하여 주위를 밝혀주는 불빛과 같이 주위의 귀감이 되는 행위가 곧 人間の 本質이란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本質인 內面보다 外像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를 boa ouvert나 fermé에서 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구절인데 저술방법이 다분히 說法조의 비유, 실례, 자신의 삽화까지 결합된 간결하고도 說破的인 文體여서 續者들이 건성으로 보아 넘기지 말기를 바라는 Saint-Ex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킨 것이며 다음 구절에서 증명한다.

Pour ceux qui comprennent la vie ça aurait eu l’air beaucoup plus vrai. Car je n’aime plus qu’ on lire mon livre à la légère.⁶⁾

人生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說破조 저술방법이 훨씬 더 참되게 보일 것이란 말은 건성으로 읽고 찰나의 작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진지하게 참된 人生을 觀照해 보지는 自己省察의 필요성도 함축된 구절이라 하겠다.

5장의 Baobab 나무에 대해 중요한 대목은 Or il y avait des graines terrible, sur la planète du-petit prince...C’étaient les graines de baobabs. Le sol de la planète en était infesté. Or un baobab,

4)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18.

5)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21.

6)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22.

si l'on s'y prend trop tard on ne peut jamais plus s'en débarrasser. Il encombre toute la planète. Il la perforé de ses racines. Et si la planète est trop petite, et si les baobabs sont trop nombreux, ils la font éclater.”

‘아프리카’의 巨木 baobab 을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던 독일의 ‘Nazism’에 비유하고 국제적인 폭력이 인류가 그리는 이상향에의 중요한 도전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만 했었다는 悔恨의 구절이라 하겠는데 baobab 나무를 ‘Hitler’란 개인과 비유하는이도 있으나 좀 더 넓은 의미로 社會에서의 惡의 증대를 경고하고 더 만연되기 전에 제거해야만 한다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레비·스트로스 같은 이는 “새벽은 하루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황혼은 하루의 반복이다”라고 黃昏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지만 Saint-Ex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황혼을 6章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의 序에서(冒頭에 친구 Léon werth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라고 밝혔듯이 Saint-Ex의 황혼은 祖國 France에 대한 憐愍의 情으로 볼 수 있다.

Quand il est midi aux États-Unis, le soleil, teut le monde le sait, se couche sur la France. 中略. Un jour, j'ai vu le soleil se coucher quarante-trois fois! Et un peu plus tard tu ajoutais: Tu sais... quand on est tellement triste on aime les couchers de soleil...⁷⁾

여기서 보면 ‘나치’ 점령하의 France를 황혼에 비유해서 망명지에서의 고독과 절망에 가까운 조국의 당시 상황을 이 작품의 전면에 흐르는 詩的인 直觀으로 표현한 구절인데 그의 直觀이란 좁은 테두리에 불과한 地上을 떠나 高空에서 俯瞰한 巨視的인 서야에서 야기된 것이지만 文學家이기 전에 병철하고도 치밀한 과학자의 思考로 여러가지 數值도 몇 章을 통해 나열하고 있으며 석양 즉, 꼭 43번 지는 해를 Petit prince가 보았다고 술회하는 것은 Saint-Ex 자신이 43살 되던 해에 이 작품이 出刊되었으므로 Petit prince가 바로 Saint-Ex 자신의 內的 自我임을 暗示해 주는 구절이라 하겠다.

Pierre chevrier도 Le plus fidèle portrait que Saint-Ex nous ait laissé de lui-même est le portrait de cet enfant qu'il nomme le petit prince.⁸⁾라고 評하고 있다.

7章에서는 꽃향기를 맡아 본적도 없고 별을 바라보지도 누구를 사랑해 본적도 없는 Un Monsieur, 오로지 덧셈만 하면서도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만 되풀이 하고, 그 때문에 아주 오만한 Un Monsieur를 Ce n'est pas un homme, c'est un champignon! 라고 petit prince가 말하는데 여기서 버섯이란 숫자놀이 즉 이해타산만 따지는 人間들의 바탕을 꼬집는 대목이다.

可視的인 숫자가 不可視한 人間の 本質을 말살 해가는데 대한 경종의 구절이다. 음지에 우뚝 서서 寄生하는 버섯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만인의 귀감이 되는 행위의 원동력인 人間の 本質과는 너무나 먼 거리이다. 그래서 Saint-Ex는 뒷 章에 여러번 반복되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를

7)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25.

8)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27.

9) Saint-Exupéry: Par pierre Chevrier, Gallimard. p. 73.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8章과 9章에서 petit prince가 Saint-Ex의 幻想이라면 꽃은 petit prince의 幻想이라 할 수 있는 꽃 한송이가 등장하는데 그 꽃과 petit prince의 사랑과 결국 꽃의 교만 때문에 petit prince가 자기 별을 떠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꽃 즉 petit prince가 사랑하고 보호하며 항상 戀해하는 꽃의 정체가 문제이다.

Pierre chevrier는 Avec des mots très simples, il suggère les brouilles, les réconciliations, tant de remous du cœur, et l'indulgence qu'il faut avoir pour la faiblesse des femmes, cause de leur méchanceté.¹⁰⁾라고 억지 때문에 여인에 대해 연약해야만 하는 관용...운운으로 꽃을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꽃을 여인(Saint-Ex에게는 부인)으로 본다면 幻想의 세계에서 現實의 세계로 돌아와 전편의 기본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일시에 깨트려지게 되므로 여인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本質보다 外像에만 집착한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서의 꽃이란 기성세대를 les grandes personnes = 俗人으로 간주하듯이 小我, 假我, 現實我에 대한 가장 理想的인 인간 즉 理想我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Petit prince가 추구하는 理想我란 神의 순수성과 人間의 따뜻한 感性을 겸비한 人間 즉 純眞無垢 = 어린이다. 그래서 Saint-Ex는 전술한 대로 “Je suis de mon enfance”라고 하지 않았던가. Freud의 이론에 따라 人間을 본능과 五慾에 사로잡혀 求快避苦하는 精神의 下層구조인 “id” 즉 “libido”와 現實法則에 입각하여 社會에 적당히 적응해 가려는 中層구조인 “ego”와 “id”나 “ego”를 감시, 통제하는 最上層구조인 “superego”의 세 부류로 분류한다면 “superego”인 超自我란 良心으로 이루어지는 理想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人間은 善과 道德生活이 可能的한 것이다.

人間이 本能과 慾望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 理想我란 가장 바람직한 人間像이고 Saint-Ex가 그러한 理想我를 Petit prince를 통해 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꽃의 교만때문에 꽃의 옆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行動하는 소위 사색과 행동의 일치를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도 logos와 pathos가 겸비한 사랑을 하던 꽃의 곁을 떠나 petit prince가 떠나던 여행길로 오른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여행길에 오른 petit prince가 처음으로 절대자인 王을 만나는 제10章.

—Mais il n’y a personne à juger!

—Tu te jugeras donc toi-même, lui répondit le roi. C’est le plus difficile. Il est bien plus difficile de se juger soi-même que de juger autrui. si tu réussis à bien te juger, c’est que tu es un véritable sage.¹¹⁾

혼자서라도 권위와 위엄, 권세를 휘두려는 王을 가장 외로운 독재자로 비유한 구절중에 하나이나 이 구절을 참으로 현명한 者 만이 克己가 가능하다”로 요약해서 권력의 허망함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집요한 애착을 뜻한다고 하겠으며 —Si le général n’exécutait pas l’ordre, reçu, qui de lui ou de

10) Saint-Exupéry: Par pierre Chevrier, Gallimard. p.74.

11)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443.

12)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442.

moi, serait dans son tort?

—Ce serait vous, dit fermement le petit prince.¹²⁾

명령을 내려서 듣지 않으면 내린 사람이 잘못이란 뜻은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sea” 중에서 도둑질한 놈 보다 도둑질할 마음을 유발시킨 놈가 더 나쁘다는 말과 nuance가 비슷하다.

아무리 절대적인 명령이라도 복명자의 양식과 판단에 합당치 못할 적에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人間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Saint-Ex가 처해있던 1940年代 유럽이나 세계사정상 군국주의자나 양식을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世代에게 행동의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王이란 인물만 놓고 볼적에는 地位를 利用하여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무리들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11章에서 만난 허영꾼에게 petit prince가 묻는다.

—Qu’est-ce que signifie admirer?

—Admirer signifie reconnaître que je suis l’homme le plus beau, le mieux habillé, le plus riche et le plus intelligent de la planète.

—Mais tu es seul sur ta planète!

—Fais-moi ce plaisir. Admire-moi quand même!¹³⁾

이 대화에서 허영꾼이란 能力은 없어도 자신의 지위만 고수하려는 者들을 풍자하고 있는데 허영이란 정말 떨치기 힘든 것인지 Tolstoi의 일기장을 들춰보자.

나를 좀먹는 3개의 악마, 첫째 : 賭博慾 = 가능한 투쟁, 둘째 : 肉慾 = 매우 어려운 투쟁, 셋째 : 虛榮 = 가장 어려운 투쟁, 재주, 지위, 권력, 재산, 能力을 뽐내고 선전하는 것은 俗物根性이다. 그런데 不幸한 것은 人間은 누구나 俗物根性을 갖고 있다는 점을 Saint-Ex는 구체적인 실체로 허영꾼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12章의 주정꾼과의 대화.

—Pourquoi bois-tu?

—Pour oublier.

—Pour oublier quoi?

—Pour oublier que j’ai honte.

—Honte de quoi?

—Honte de boire!¹⁴⁾

세상만사에 염증을 느끼고 마침으로서 자기 망각의 세계에 몰입하려는 자기 도피성 의욕 상실 世能를 풍자하고 13章의 5억이 넘는 별을 소유한 실업가가 Et que fais-tu de ces étoiles? —Ce que j’en fais? Rien, je le possède. 그냥 소유할 따름이란 대답은 mammonism 時代에 돈으로 무엇이냐 해결하려 드는 拜金主義思想에 대해 통탄하는 구절이며 14章의 점등부는 뚜렷한 목적없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기계처럼 사회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기계 문명하에서 강요되는 人間の 물질화,

13)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46.

14)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46.

기계화, 분업에 의해 기계부속화 되는 점을 경고하고 15章에서는 地理學者의 이야기를 듣는다.

—Je ne suis pas explorateur. Je manque absolument d'explorateurs. Ce n'est pas le géographe qui va faire le compte des villes, des fleuves, des montagnes, des mers, des océans et des déserts. Le géographe est trop important pour flâner. Il ne quitte pas son bureau. Mais il y reçoit les explorateurs.¹⁵⁾

知性을 文學史中的 人物로 비유해서 3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Hamlet은 지성과잉 행동 빈곤이고, Don Quixote는 행동과잉 지성빈곤이라면, Faust는 사색하며 행동하는 이상적인 知性으로 일컬어진 다. 이러한 관점에서 Saint-Ex는 체험보다 'data'만 가지고 탁상공론만으로 일관하는 사색과잉의 知識人을 초월해서 보다 확고한 신념으로 사색하며 행동하는 知性의 行動化를 요구하는 구절이라 하겠다.

또한 Nous ne notons pas les fleurs-pourquoi ça?

—Parce que les fleurs sont éphémères.

—Qu'est-ce que signifie éphémère?¹⁶⁾

—ça signifie qui est menacé de disparition prochaine에서 자기 별에 홀로 남겨 놓고 온 꽃이 '순간적'이고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地理學者의 말은 꽃=理想我라고 전술한 바 人間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理想我란 그 만큼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16章에서는 petit prince가 地理學者의 권유대로 지구에 도착해보니 허세가인 王, 탁상공론 학자, 주정꾼, 실업가, 허영꾼 등이 거의 20억이나 살고 있더라 구절은 幻想의 세계에서 現實의 세계로 전환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俗人에 대한 풍자를 說破한 후이며 17章에서 petit prince가 뱀을 만나 Sur quelle planète suis-je tombé?

—Sur la Terre, en Afrique.

—Ah...Il n'y a donc personne sur la Terre?

—Ici, c'est le désert.¹⁷⁾에서 사람없는 사막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만나 본 왕에서 학자까지 생의 목표가 권위, 허영, 금전 등으로 정해져 스스로 俗物이 되어 버린 人間들과 관계의 단절이고 外像에만 집착하여 知足하지 못하고 不知足한 상태에 있는 人間과의 단절이며 진실한 세계의 참모습은 권력, 허영, 자포자기, 부귀영화, 기능, 지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을 느낀 참된 인간의 염세감을 19章에서

—Bonjour dit-il à tout hasard.

—Bonjour...Bonjour...répondit l'écho.

—Soyez mes amis, Je suis seul.¹⁸⁾이란 극심한 고독의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Armand Hoog가 "La qualité souveraine de Saint-Ex restera, je pense, son extraordinaire hum-

15)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48.

16)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48.

17)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61.

18)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70.

anité.¹⁹⁾라고 잘막하게 評하듯이 여기서의 humanité는 charité와 동의어이고 바로 佛敎의 慈悲이다. Saint-Ex가 人間本質을 망각한 俗物인간들을 크게 사랑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이 회박함을 느끼고 그들을 가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je suis seul이라 표현했다고 보는 것도 그렇게 無理는 아닐 것이다.

全 27章中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내포된 章이 바로 21章인데 petit prince가 여우를 만나서 묻는다.

—Qu'est-ce que signifie apprivoiser?

—C'est une chose trop oubliée dit le renard.

ça signifie créer des liens... Tu es encore pour moi qu'un petit garçon tout semblable à cent mille petits garçons. Et je n'ai pas besoin de toi. Et tu n'as pas besoin de moi non plus. Je ne suis pour toi qu'un renard semblable à cent mille renards. Mais, si tu m'apprivoises, nous aurons besoin l'un de l'autre. Tu seras pour moi unique au monde. Je serai pour toi unique au monde...²⁰⁾

apprivoiser란 단어를 간교한 여우가 설명하는 상징적 의미는 아무리 간악하고 이질적인 인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참된 맘으로 오랫동안 사귀게 되면 상호 교섭에 의해 마음의 연관이 이루어져 서로 存在의 의미를 갖게 되고 자기 세계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이 'apprivoiser' 즉 "길들이다" = "관계의 창조"란 말의 숨은 뜻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를 否定的인 면에서 불적에 허구와 고독, 절망,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상호 불신과 관계의 단절속에 살아가는 現代人들은 人間本質을 망각한 상태에서 étrangeté한 느낌밖에 없으므로 결국 질시, 오해, 투쟁이란 추악한 면만 연출하게 되므로 결국 apprivoiser의 뜻은 요약해서 philia적 사랑을 Saint-Ex가 요구하고 그것이 바로 Saint-Ex의 humanité라고 볼 수 있다.

20章의 수천송이의 장미꽃도 자신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나 22章에서 어린애들이 코를 부비고 형접으로 만든 인형을 뺏으면 우는 것은 꼬마들에게 길들여진 것은 오로지 코맡은 인형밖에 없다는 것은 자신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만 이 진정한 自己의 所有란 결과를 暗示하는 것이다.

21章에는 apprivoiser外에 On ne voit bien qu'avec le coeur. L'essentiel invisible pour les yeux.²¹⁾

"本質의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말의 뜻은 知識이 아닌 知慧의 눈으로 事物을 관조할 수 있는 慧眼을 요구하는 구절이다. 혜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根本이란 人間의 本質이다. 사람들은 흔히 論理나 물질적인 계산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물에 빠진자 구하려다....." 얼마나 자주 들었고 들을 수 있는 말인가? 이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동이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몇 번이고 되뇌이고 싶어지는 것은 良識있는 者 만이 느낄 수 있는 Sympatie인 동시에 佛敎에서 말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내 마음에 달렸다'는 '一切唯心造' 思想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다.

19) Saint-Exupéry: Reflets par Armand Hoog, Carrefour, 3 février 1945.)

20) p. 470.

21)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74.

22章과 23章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분주히 왕래하는 人間들은 時間에 쫓기고 일에 밀리며 황금을 좇아서 어디서 어디로 몰리며 살아가는 現代生活的 mécanique한 단면을 풍자하고 있는데 21章과 연결된다. 즉 On ne connaît que les choses que l'on apprivoise, dit le renard. Les hommes n'ont plus de temps de rien connaître. Ils achètent des choses toutes faites chez les marchands. Mais comme il n'existe point de marchands d'amis, les hommes n'ont plus d'amis.²²⁾ 에서 처럼 現代人에게는 참된 친구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상점에서 팔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다는 것인데 친구란 오로지 자신이 길들이기에 팔린 것이나 高度로 발달된 현대 물질문명 사회에서 可視의 세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열되어 숫자를 좋아한다고 비유된 現代人들이 자연히 바빠지게 마련이라 다시 23章에서 On épargne cinquante-trois minutes par semaine를 c'est une grosse économie de temps²³⁾ 으로 표현하는 뜻은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대인들이 外像에만 집착하여 이것 저것 보이는 것마다 모두 자신과의 참된 관계의 창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관계만 맺으려다 보니 당연히 바빠지고 완행하던 급행으로 다닐 수 밖에 없다는 外像渴求의 世態를 풍자한 구절인 것이다.

24章에서 L'eau peut aussi être bonne pour le coeur...²⁴⁾

물은 마음의 약이 될 수 있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물이 있기 때문이며 사막에서 반짝이는 것은 물이다.

여기서의 물이란 “길들이기엔 좁을 수 있다”는 petit prince의 말과 연결된다. 눈물은 인간의 우물이고 순수와 진실이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뜻이므로 여기서 마음의 약이 되는 물은 바로 진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petit prince가 그 물에 “나”라는 說話者를 인도해 주는 것은 진실을 알으켜 주었으므로 현실이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24장과 25章에서 보여주고 있다.

26章에서 petit prince의 죽음의 의미는 전편에 흐르는 抒情的인 ‘무드’ 속에서 說話者인 ‘나’와 petit prince 간에 同一人이란 느낌을 독자로 하여금 불러 일으키는데 “나”라는 說話者가 사막에 불시착하여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속에서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어린 왕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고로 어린 왕자는 “나”란 說話者의 참된 自我이다. 즉, Tu seras toujours mon ami. Tu auras envie de rire avec moi. Et tu ouvrira parfois ta fenêtre, comme ça, pour le plaisir. Et tes amis seront bien étonnés de te voir rire en regardant le ciel. Alors tu leur diras: Oui, les étoiles ça me fait toujours rire: Et ils te croiront fou.²⁵⁾에서 보다 싶이 petit prince가 사는 별을 향해 내가 웃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미친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뜻은 그들은 “나”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petit prince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결국 “나”는 더욱 고독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etit prince란 幻想의 인물을 내세워 추구했던 人間本質인 理想我和 진실과 인간상오 관계의 창

22)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71.

23)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78.

24)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79.

25) oeuvres complètes, pléiade. p. 490.

조, 길들이기가 헛된 노력이 된다는 일종의 염세적인 좌절감에서 petit prince가 죽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보고 싶다.

petit prince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이 삽화와 더불어 유난히도 슬프게 묘사된 것도 Saint-Ex 자신의 그러한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petit prince의 죽음은 절망과 고독의 상징인 것이다.

petit prince의 영혼이 자기 별로 돌아가지 않고 육체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면 작고의 슬픔만 남기는 끝맺음이 될 것이지만 현웃 벗어 던지듯 육체를 버려두고 영혼만 되돌아 간 것을 佛敎의 윤회설로 풀이하는이도 있으나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윤회보다는 산 자는 지상에 잠깐 머물 따름이고, 죽은 자는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生者奇死者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어쨌든 Saint-Ex의 終章 처리가 독자에게 허전한 우수와 漠然한 人間愛에 대한 鄉愁를 불러 일으키는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結 論

제 1章과 27章만 제외하고 소편을 통해 petit prince가 등장하는데 어느 章에서나 純眞無垢한 어린이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Saint-Ex는 기독교적인 묵상에서 신을 유추하지 않고 人間本質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思考하다 보면 저절로 神을 의식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L’Homme était crée à l’image de Dieu. On respectait Dieu en l’homme”란 그의 말이 뒷받침 된다.

그래서 그는 人間이란 단어도 神이란 단어와 같이 머릿글자를 大文字를 사용하여 Homme로 表記하고 있다. 그는 또한 행동적인 humanism으로 기독교의 agape 보다 神의 被造物인 人間에 대한 佛敎의 慈悲와 儒敎의 仁으로 표현되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Saint-Ex 자신이 東洋의 敎를 잘 이해했다기 보다 1930年代를 前後한 유럽 사회에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기독교의 agape를 전면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Nietzsche의 “Dieu est mort” 보다는 부드러운 “Dieu est silence”로 그는 표현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사상과 Sartre, Camus의 실존주의 문학을 태동시킨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 염세감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본 작품에서 神에 대한 구절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apprivoiser”와 “créer des liens”이란 인간 상호간의 philia적 관계의 정립만이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다.

Bibliographie

1. 作家와 社會, 一潮閣, 金鵬九 著.
2. 世界文學大辭典, 廣書出版社.
3. Oeuvres complètes de Saint-Exupéry. pléiade.
4. Saint-Exupéry par Pierre chevrier. Gallimard.
5. Saint-Exupéry par Marcel Migeo. Flammarion.
6.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Stock